

DPC소식

서울 국제데이터베이스쇼 및 세미나

초고속 정보통신망에서의 DB의 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국내외 200여개사가 참가하는 서울 국제 P C쇼와 동시에 개최

제2회 서울국제데이터베이스쇼 및 세미나 (DATABASE SEOUL '94)가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 1층 태평양관에서 개최된다.

93년 9월에 개최된 제1회 행사가 21세기 정보인프라스트럭처의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DB산업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확산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데 비하여, 이번 제2회 행사는 국내 DB관련업체의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관련업체의 마케팅과 기술정보획득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DB산업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최근 국내 DB산업은 정보기기의 빠른 보급과 정보마인드 확산, 이에따른 DB이용자층의 확대를 바탕으로 활성화의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에서 제작된 700여종의 DB들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고 체신부의 주도하에 공공DB개발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

기에 개최되는 "DATABASE SEOUL '94"는 국내 관련업체들이 개발한 새로운 DB들을 수요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동 기간에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권위있는 DB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DB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관련업체 종사자들에게 귀중한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이다.

● 전시회명

국문 : 제2회 서울 국제데이터베이스쇼

영문 : SEOUL INT'L DATABASE SHOW '94

약칭 : DATABASE SEOUL '94

주관 : 체신부

주최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조선일보사

한국종합전시장(KOEX)

기간 : 1994. 9. 12(월)~15일(목)(4일간)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1층 태평양관

출품품목 :

- ON-LINE DB(생활, 비즈니스 외)
- OFF-LINE DB(전자북 외)
- 멀티미디어 DB(CD-ROM외)

- DB관련 S/W(DBMS의)
- DB관련 SYSTEM(CLIENT-SERVER SYSTEM의)
- 국영 - PC통신, VAN, 비디오텍스
- DB관련 H/W(메인프레임 외)
- NETWORK관련기기

● 세미나안내

행사명 : 제2회 국제DB세미나 및 학술대회
 주 최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조선일보사
 일 시 : 1994. 9. 14~15(2일간)
 장 소 : 라마다르네상스호텔 3층(다이아몬드 볼룸)

현재 40여사가 참가신청을 완료하였고 주요업체별 출품품목들을 보면 중앙일보, 산업기술정보원 등이 비지네스 및 과학기술분야의 ON-LINE DB, 한국전자통신연구소, DERWENT PUBLICATION이 멀티미디어 DB, 오라클, 삼성전자가 등이 DBMS, 삼흥시스템, 정보성등이 DB관련 S/W를 출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40여개사가 참가 예정으로 있어 총80여개사가 2,000여점의 관련품목을 전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적인 DB붐조성을 목표로 조선일보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TV광고등을 준비중에 있으며 TV광고는 개막 1주일전부터 주요시간대에 개최 광고를 방송키로 계약하고 현재 광고 제작중에 있다.

이에 조선일보는 일반인의 컴퓨터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주 발행하고 있는 특집 "사람과 컴퓨터"란을 통해 다가올 정보화사회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전시회 개최 1개월전부터 전시회 특집을 제작하여 참가업체의 출품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서울 시내 주요도로 10여곳에 육교현판과

주요 교차로 5개지점에 상징탑을 설치하며 광화문 조선일보사옥에 대형 프랭카드를 2개월간 설치하고, 전시회 출품업체 및 품목현황을 자세히 수록한 안내장과 초청장을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국내외 관련업체, 연구소 및 학교 100,000개소에 우편발송하며, 국내 주요 경제신문 및 정보통신 관련 전문지에 전시회 개최 1개월전부터 참관안내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기존의 정보통신관련 국내 전시회들이 일반인 및 어린 학생들이 주로 참관하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로써 참가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점을 중시하고 본 행사는 국내외 관련업체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대거 참관하여 구매상담과 정보교환을 주로 하는 본격 TRADE SHOW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행사전 정보교환을 통하여 국내외 관련업체 종사자 및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하는 대신 기존의 전시장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여 관련없는 일반인의 입장을 제한하고 전시장내에서의 판매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전시장의 상담분위기를 조성하여 고객관리시스템을 참가업체들에게 무료로 지원하여 전시장을 방문한 모든 참관객에 대한 정보를 참가업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후 고객관리까지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 등록」 실시

센터는 7월 말부터 국내유통DB 조사와 병행하여 자체적으로 DB등록 실시에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제반활동도 강화키로 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절차를 밟아 '96년부터는 법적 뒷받침하에 등록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방법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국내유통DB 실태조사서 부분중 제작기관과 데이터베이스정보 부분에 한해 별도의 등록 절차없이 센터의 DB등록대장에 해당항목이 등재된다.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는 월간 DB월드, 데이터베이스목록 게재 및 일간 경제지와 관련전문지를 통하여 폭넓게 홍보하고 DB목록 DB를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DB 중 우수DB 추천제를 도입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채신부 주관하에 DPC와 한국통신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DB개발업체 추천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는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통해 업계의 중복투자방지 및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가능케하고 국내유통DB의 현황과약과 관련자 및 일반인에 열람케 함으로서 대국민 이용도 고취와 활성화 유도에 주안을 두고 있다.

DB등록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당 센터 제도·연구과로 연락바랍니다.

☎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DPC) / 제도·연구과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조선일보사 2층
(☎ (02)724-6692/3, Fax:(02)725-3750)

「'94 동경DB쇼」 참관단 모집

「'94 동경 DATABASE쇼」 참관단 모집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일본의 유명한 DB전문 전시회인 「DATABASE '94 TOKYO」행사의 참관단을 모집한다. 오는 9월7일(화)부터 9월9일(금)까지 3일 동안 동경 선사인 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동경DB쇼는 일본DB진흥센터, 일본DB협회와 일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적인 전시회로 온라인 DB, 인터넷 이미지DB, CD-ROM,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 등 DB관련 신기술 및 제품을 선보이게 된다.

- 아 래 -

가. 전시회명 : 「DATABASE '94 TOKYO」

- 기간 : 1994. 9.6~9.9(3박4일)

- 장소 : 동경 선사인 시티 컨벤션 센터

- 주최 : 일본DB진흥센터

일본DB협회

일본경제신문사

- 관련내용

- 국제포럼
- 주요출품업체 WORK SHOP
- ON-LINE DB
- 인터넷
- 이미지 DB
- CD-ROM,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 등

나. 참가비 : 664,000원(40명 출발기준)

여권발급료 별도

다. 참가신청 및 문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산업지원과/신재식 대리

(전화 : 725-3751/3, 전송 : 725-3750)

(주)동서여행사 해외여행부/배금순 차장

(전화 : 735-8734/8 전송 : 733-4641)

일 정 표

1994년 9월 6일(화) ~ 9월 9일(금) 3박4일

일 시	장 소	내 용	비 고
9월 6일(화) 09 : 55 11 : 55 14 : 30	아시아나 OZ 102편 김 포 공 항 나리타공항 동 경	서울출발 나리타공항 도착 호텔도착	
9월 7일(수) 전 일	Convention Center	전시 참관 (출품업체 면담 및 자료수집)	東京 池袋(이케부쿠로) (Sunshine City Prince Hotel)
9월 8일(목) 전일	Convention Center	전시참관	東京 池袋(이케부쿠로) (Sunshine City Prince Hotel)
9월 9일(금) 10 : 00 13 : 25 15 : 30	아시아나 OZ 101편 동 경 나리타공항 김 포 공 항	호 텔 출 발 나리타공항출발 김포공항도착	

※ 동기간중 일본 DB관련기관 및 업체 등 방문계획은 추후 통보할 예정임

참관신청서

(참관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복사하여 1인 1장으로 작성바랍니다)

참 관 신 청 서			
업체 또는 기관명		주 소	
Tel		참관자성명 (여권과 동일 하게 기재)	한글 :
Fax			한자 :
참관자부서명			영문 :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 여)
여권소지 여부		여권및 비자발급 의뢰여부	(○ , × 또는 기록)

일본 DB소 참관시 일본내 DB관련 업체 또는 기관방문 접촉계획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 1. 방문업체(기관)명 :
- 2. 방문장소 :
- 3. 방문일시 :
- 4. 방문목적 :
- 5. 방 문 자 :

우리회사(기관, 소, 회)는 귀 센터에서 모집하는 "Database '94 Tokyo"에 위와 같이 참관코자 신청하오니 접수 바랍니다.

1994년 월 일

업체명 또는
기 관 명 (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귀중

회원사 소식

데이콤

사설 BBS 전국 네트워크 구축

- 데이콤 천리안 활용, 7월9일부터 「전문 BBS광장」 개설
- 계층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분야의 컴퓨터통신 서비스 제공

플뿌리 컴퓨터 통신 또는 재야정보통신이라고 불리던 사설 BBS(BULLETIN BOARD SYSTEM, 전자게시판)가 대규모 공중정보통신 서비스와 연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사설 BBS운영자 단체인 한국PC통신협의회(회장:이상길)와 컴퓨터통신 서비스 천리안으로 잘 알려진 (주)데이콤(사장:손익수)이 오는 7월9일부터 천리안 내에 「전문 BBS광장」을 개설, 사설 BBS들이 각각 자신들의 메뉴를 등록하고 공동게시판등을 서비스 하기로 합의한데 따른것

이다.

천리안 「전문 BBS광장」 개설로 인해 사설 BBS회원들은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접속의 어려움과 전화요금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천리안 이용자들도 전문, 취미, 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BBS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사설 BBS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각 사설 BBS운영진들이 개인적으로 축적해온 경험과 자료를 천리안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사설 BBS의 양성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과 지역정보문화의 조기 확산, 전문정보 교류의 확대 등 정보문화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설 BBS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PC통신협의회 이상길 회장(576-3976)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DACOM-NET, STM*NET와 상호 연동

- 7월말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

- 데이콤, 에스티엠 양사간 망 연동계약 체결

국내 최대의 공중정보통신망인 데이콤네트웍(DNS: DACOM-NET SERVICE)과 민간 VAN사업자인 에스티엠의 사설통신망 STM*NET가 서로 접속돼 7월말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데이콤은(사장: 孫益壽) 자사의 공중정보통신망인 DNS와 (주)에스티엠(사장: 金永泰)이 구축, 운영중인 STM*NET를 서로 접속해 사용하기 위한 통신망간 연동계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7월말 부터 서로 연동에 들어가는 통신망 중 DNS는 (주)데이콤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84년 7월 개통한 공중정보통신망으로 각종 컴퓨터나 단말기에서 송·수신되는 정보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 7개 주요도시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통신 전용교환기(TP-4/Ⅲ)를 통해 패킷단위로 분할, 전송하는 패킷교환 방식의 컴퓨터통신 전용망이다.

한편 데이콤은 이번 DNS와 STM*NET망간의 연동을 계기로 올 연말까지 삼성데이터시스템의 S-NET, 현대전자의 HI-VAN, 한국무역정보통신의 KT-NET 등 민간기업 사설망과의 상호접속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성정보통신

정보기술훈련원 설립

정보와 지식이 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정보통신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성정보통신은 사내 전 임직원 및 사외 고객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키로 하고 최근 이를 전담할 정보기술훈련원(ITTI)을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금성정보통신은 사내 각 사업부문간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사내 임직원 전원을 정보통

신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해 전원인재 경영을 실현하는 한편 협력업체 및 사외고객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정보통신의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을 위해 금성정보통신측은 정보통신 전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기술교재를 자체 제작하는 한편 교육을 담당할 전담교수를 선발했으며 본사 및 구미공장에 교수부와 교재편찬위원회로 구성되는 정보기술훈련원을 설치했다.

이외함께 전 관리자가 한 분야의 전공과목을 개발, 논문으로 제출토록 해 필요시 전담교수와 함께 강의를 진행할수 있는 1인 1전공과목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데이터베이스화한 논문을 이용, 새로운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사외고객 교육도 정보기술훈련원이 일괄 주관해 협력업체 및 대리점 관리자·구매고객·해외고객 등을 대상으로 경영자과정과 전문과정을 설치, 경영전략·정책방향,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운용, AS 등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러시아에 교환기 수출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13일 7백만 달러 규모의 12만회선급 대용량 전자 교환기 스타렉스-TX1을 러시아 남서부스타프로폴주의 스타프로폴시에 공급키로 스타프로폴주 체신청과 계약을 체결했다. 금성정보통신이 이번에 수출하는 제품은 호스트교환기(스타렉스-TX1)와 전화국간 연결교환기(TANDEM)본체 및 원격교환시스템(RSS)등이다.

금성정보통신이 자체 개발한 스타렉스-TX1 교환기는 지난 6월 러시아 사마라지역에도 6천1백회선을 공급, 개통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체신청으로부터 스타렉스-TX1을 비롯, 스타렉스-IMS, TD1, TP 등 스타렉스시리즈의 형식 승인

도 획득한 바 있다.

서울시스템

국제신문 CTS 수주

국제신문 CTS구축사업의 공급업체로 서울시스템이 결정됐다. 서울 시스템은 부산국제신문이 추진하고 있는 32면 전면 컬러제작을 위한 CTS 구축 계약을 최근 체결했으며 다음달중순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스템은 국제신문의 CTS가 지금까지 국내언론사들이 설치한 CTS중 단일시스템으로는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국제신문이 구축하게 될 CTS는 기사집배시스템에서부터 화상입력·편집·지문·컷제작·광고제작·출력에 이르기까지 온라인으로 연결되며 32면 컬러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서울시스템은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모든 SW를 자체개발했으며 기사입력기 80대, 노트북PC 1백대, 입력시스템 20대, 광고제작기 9대, 대조편집기 25대 등과 화상처리 시스템, 컷·지문제작기, 인화지출력기, AP화상송수신 장비 등을일괄 공급할 계획이다.

패키지SW사업 강화

서울시스템(대표 이웅근)이 패키지SW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스템은 그동안 자사의 DTP·CTS시스템용으로 개발, 사용해온 각종 SW들의 상품화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글꼴(서울폰트웨이브)에 이어 DTP유틸리티(한글도사), 그래픽SW(코렐드로) 등을 선보이고 DTP SW의 상품화도 추진하고있다.

서울시스템이 지난해 개발, 상품화를 보류해 오다 최근 시판을 시작한 한글도사 1.0은 영문 그래픽SW에 한글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코렐

드로·포토스타일러·3D스튜디오·오토캐드 등 그래픽SW상에서의 텍스트입력및 편집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한글도사 1.0 일반용은 견출명조·견고딕·신명조·윗줄각고딕·알찬체·큰머리체등 한글 6종을 비롯 한자 2종의 글꼴과 기본심볼이 제공되며 전문용은 한글19종, 한자9종의 글꼴이 제공된다. 서울시스템은 또 자사의 글꼴들을 매킨토시 및 도스·윈도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폰트 웨이브와 그래픽SW 코렐드로 4.0의 판매에 적극 나서는 한편 PC용 DTP SW인 페이지프로의 별도상품화도 추진하고 있다.

에이텔

PC통신 가입자 제한

에이텔(대표 김대규)은 이달부터 PC통신 가입자 제한과 전문정보 위주의 DB개발, 고속회선 할당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PC통신사업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에이텔은 국내 PC통신업체들이 저가정책에 의한 가입자 확보에 치중해 점차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해외정보와 국내 전문정보를 집중 개발하고 가입자를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제한하는 등 기존 PC업체와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 패킷교환통신망인 POS-NET를 통한 1백20포트의 “포스서브” 접속선로를 모두 1만4천4백 BPS의 고속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에이텔은 특히 가입자들의 원활한 PC통신 접속을 위해 8월말까지 10억여원을 투자, 7백20개의 포트를 확보할 수 있는 6대의 호스트 컴퓨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에이텔은 이에 따라 기존 4대의 호스트 컴퓨터와 1백96개의 포트에서 각각2.5배 늘어난 10대의 호스트와 9백16개의 포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에이텔은 이밖에 요금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는데 가입자를 20대 이상으로 제한하는 만큼 일반기업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로만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용요금은 최저사용료 1만원에 정보이용료를 추가할 예정이다. 에이텔은 이를 위해 우선 8월말까지 담당부서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시스템 및 통신망 개편작업을 완료하고 9월1일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PC통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며 이용요금제도는 가입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MJL

“광쥬크박스 DAT를 이용한 데이터관리”세미나 개최

한국 엠제이엘(대표 임만직)은 서울에서 “광쥬크박스와 DAT를 이용한 데이터 관리”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3백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용량 저장장치의 사용 추세와 시장동향 및 HP사의 관련제품에 대한 소개와 성능 시연이 있었다.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데이콤, 가입자 확보경쟁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으로 각각 나눠 접속하기로 한 무역자동화 지정 사업자간 약정 시일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데이콤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가입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인 KT-NET와 데이콤은 지난해 각각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에 우선 접속하기로 약정을 맺었으나 그 기간이 지난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모든 은행과 접속한다는 방침 아래 영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KT-NET과 데이콤은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한 치열한 가입자 확보경쟁이 예상되는데 이들 업체가 이처럼 은행과의 접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모든 무역업무의 자동화가 사실상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올초 금융전산망과 접속, 국내 33개 시중은행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KT-NET은 다음주 중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외국계 은행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KT-NET은 올 연말까지 70여개 외국계 은행 중 약 30개 정도의 은행과 접속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데이콤도 지난 5월 프랑스 소시에테제너럴 등 5개 외국계 은행과 14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무역자동화 서비스에 들어간데 이어 다음달까지는 금융전산망과 연동, 33개 국내은행을 모두 접속할 방침을 세우고 이달중에 금융결제원과 금융망조정위의 승인절차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현재 무역업체들의 수출입 신용장처리는 약 60%가 국내 은행에서, 40%는 외국계은행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자연구통신연구소

ETRI,정보통신처리시스템 개발순조

전화망과 패킷교환망(HINET-P)을 연동해 정보통신서비스의 관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정보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정보통신 처리시스템(ICPS)”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돼 오는 9월부터 상용화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통신처리연구부(부장 윤병남)는 정보트래픽으로 인한 전화망의 과부하를 예방하고 패킷망과의 연동을 통한 DB(데이터베이스)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정보통신단말기는 대부분 PSTN(공

중전화망)에 접속된 관계로 정보제공센터를 전화국의 가입자 형태로 운영할 경우 모든 정보 트래픽이 DB가 구축된 특정전화국에 집중돼 전화연결만의 기능을 갖고 있는 교환기에 무리를 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ETRI 통신처리연구부가 한국통신(KT) 출연(75억원)으로 4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한 이 시스템은 전화망과 패킷교환망을 연결시켜 주는 접속장치(ISAP)와 자금 및 안내기능을 담당하는 관리장치(M-OAM) 등으로 구성, 하이텔 등 PC통신 이용자의 발신전화번호 및 이용 DB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PC통신 이용자들은 번거로운 가입 절차가 없어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자(IP)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이용료 회수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각 DB시스템이 지역별로 확산운용되는 경우에 대비, 정보제공 시스템들을 서로 효율적으로 연동시키고 전국적인 DB망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노드 프로세서의 기능과 특정 DB시스템을 일반적인 정보통신 단말기나 PC·팩스 등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ETRI 통신처리연구부는 그동안 이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 기술을 이전받아 삼성전자 및 금성정보통신 등 관련업체와 함께 구로전화국 등에서 1백61개항목에 달하는 동작확인시험 및 상용시험을 수행한 데 이어 현재 대전 용전전화국에 2대의 시스템을 설치, 오는 9월 상용화를 위해 기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정보센터

산업기술정보원과 업무협력각서 체결

국가 정보유통사업의 양대축을 맡고 있는 과거 처산하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와 상공부산

하 산업기술정보원(KINITE)이 관련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및 관리를 위해 상호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개발정보센터(소장 성기수)와 산업기술정보원(원장 박홍식)은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 본관 제1회의실에서 “데이터베이스(DB) 관련 기술 및 정보의 상호교환” 및 “일·한자동번역 및 유통사업상호협력”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세계적 수준의 국가정보유통기관을 목표로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정에는 *양기관이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호협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꾀하고 *DB관련 기술 및 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해 DB제작기술의 향상에 협력하는 것을 비롯 *정보처리 및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정보유통기술의 표준화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표준화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보유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것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양기관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일본과학기술정보(JOIS)의 일·한번역 서비스부문에 대한 사업영역을 구분, 일·한 번역서비스사업은 양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되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산업기술정보원은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의 일·영용어 대역사서인 용어파일을 도입, 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일·한 자동번역시스템 및 인터페이스의 개발성과를 기정원에 제공하고 기정원은 용어파일 번역결과를 연구개발정보센터에 제공하는 등 상호역할 분담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관은 이번 협력체결에 따라 상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인이내의 실무협의회를 구성, 상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구개발정보센터와 기정원은 지난해 연구개발정보센터 설립이후 국내정보유통부문의 주도권을 장악키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DB]